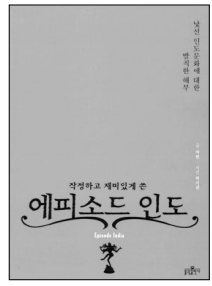


인도문화의 최대 히트상품은 ‘불교’

에피소드 인도

글 자현 스님 | 사진 하지권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인도는 여행자들의 천국이다. 여러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입장에서 분명 매력에 철철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인도 여행을 다녀 온 사람들 대다수가 여정은 힘들지만 또 가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도가 어떤 매력에 이끌려 이토록 기록하지 않은 여행 환경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일까. 우리의 가장 멀리 있는 문화권으로서, 고전되고 일반화된 상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나라다. 그래서 인도를 다녀온 사람들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누군가에게는 풍만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풍도 풍토로 보인다.

이 책의 모티브는 인도의 이런 생경한 문화가 자현 스님의 해박한 지식에 버무려져 오해와 왜곡의 그림자를 벗고 흥미롭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인도의 문화가 선풍 이해되지 않는다고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인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며, 그들의 문화전통에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이 책은 종교·철학·역사·문화를 종합된 오가는 종합적 지식인 자현 스님이 동·서양문화를 넘나들며 인도문화에 대해 시원스럽게 설명한다. 한 편마다의 에피소드를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미지의 문화가 단숨에 풀리며 인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하지권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150여 장은 약방의 감초처럼 인도문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한다.

저자 자현 스님은 박사학위 3개를 취득한 학자이며, 학진 등재지에 100여 편 논문과 수백해 인문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학문적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다. 결혼한 이력에 걸맞게 그동안 펴낸 30여 편 저서 중 <사찰의 상징 세계> <붓다순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와 세종도서 선정돼 문화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인정받기도 했다.

여행자의 눈에 비친 인도는 혼란과 경이로움이 교차한다. 어디를 가나 소와 개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오물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오래된 유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도를 생각하면 남루한 행색의 명상 수행자가 겹쳐 떠오르는 반면, 인도는 핵보유국이자 IT산업을 비롯해 첨단과학기술을 보유중이다. 문화적으로는 영국으로부터 200년간 지배를 받았어도 기독교 문화

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는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르며 신흥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

이 책은 인도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인도 여행을 다녀왔어도 알쏭달쏭 의문만 증가된 이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그 토대는 바로 다름을 즐기려는, 열려있는 마음이다. 독특하고 낯선 인도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진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우

저자 종합적 사고로 인도문화 해설

인도는 여행자들의 천국이요 학교

불교문화, 인도문화 기반으로 탄생

리가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일상생활서 나와 다른 그 모든 것과 대면했을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이다.

인도문화의 세계적인 히트상품은 단연 불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교는 더없이 친숙해도 인도는 요원하다. 불교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속에서 2천여 년을 함께하며 인도를 지위해왔다. 원전 대신 팔만대장경 한문 경전으로 불교를 배우고 불상 역시 우리네 생김새로 변모했다. 덕분에 역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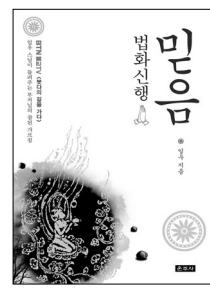
환기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기억해도 가슴에서는 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고 불교의 탄생은 인도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 경전과 더불어 문화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부처님은 지금의 스님들처럼 삭발을 했다. 그런데 왜 파마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식사했는데, 왜 어떤 불상은 비대한 몸집의 형상으로 표현됐을까? 그것은 모두 시대적인 요청이 반영돼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불상에 콧수염과 상투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살인미소를 머금기도 했으며, 때론 이팔청춘의 젊고 역동적인 모습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불상을 본다면 우리는 훨씬 흥미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듯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문화의 지식을 겸비하고 불상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지적인 만족과 유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불상이라는 종교적인 존상이 뿜어내는 성스러운 의미이다. 이처럼 흥미로운 시선으로 불교에 접근하다 보면,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불교가 훨씬 신선하게 다가오며 불교의 본질적인 의미도 정확하게 짚어 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법화경’ ‘믿음’... 참된 신행 키워드

일우 스님의 알기 쉬운 법화경 강의

일우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불교TV <붓다의 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 설법해 온 일우 스님이 방송 내용을 재정리해 책으로 엮었다. 전자 <지금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이 주름진 울바른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였다면, 이번 책은 불자로서의 참된 신행에 중점과 상투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살인미소를 머금기도 했으며, 때론 이팔청춘의 젊고 역동적인 모습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불상을 본다면 우리는 훨씬 흥미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듯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문화의 지식을 겸비하고 불상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지적인 만족과 유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불상이라는 종교적인 존상이 뿜어내는 성스러운 의미이다. 이처럼 흥미로운 시선으로 불교에 접근하다 보면,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불교가 훨씬 신선하게 다가오며 불교의 본질적인 의미도 정확하게 짚어 낼 수 있다.

“경전 중의 제일”로 일컬어지는 <법화경>은 특히 대승불교권인 중국과 한국, 일본 등서 더욱 사랑받아왔다.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를 담았을 뿐 아니라, 신심을 고취시키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거나 사경하고, 널리 전하는 등의 공덕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수많은 영험담이 책으로 엮어져 전해질 정도이다.

저자 일우 스님은 말과 이론만 무성한 현재의 불교는 진정한 불교의 모습이 아니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는 믿음의 불교, 생활 속 불교, 민중의 불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불교에 대한 스님의 그런 바람들이 속속들이 녹아 있다. 스님이 가

장 강조하고, 올바른 신행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는, 마치 어린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받들겠다는 마음과 신행생활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물질과 재물과 갑의 위치만을 쫓는 현실에 대해 스님은 묻는다. “과연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분별과 망상과 허영과 야심을 다 내려놓고, 한편으로는 내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 등을 부처님께 진술하게 드러내, 부처님의 권속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스님은 왜 믿음이 중요한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등을 믿음의 경전인 법화경을 통해 설하고 있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이 절 안이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부처님 가르침이 가정이나 사회 속에 투영되고 실천되어서, 건강한 가족관계, 행복한 가정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보살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대할 때 가정이 행복한 공간이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 속 불교이다.

한편 이 책이 장점은 잘 읽힌다는 데 있다. 물론 경전(법화경) 해설서로서 불교 사상과 개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비유와 생활 속 이야기들로 설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다른 종교서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종교의 진수

기독교와 불교, 서로에게 배우다

난잔종교문화연구소 지음 | 김승철 등 5명 공역 | 정우서적 펴냄 | 2만5천원



이 역서는 일본 교야 소재 난잔대학(南山大學) 난잔종교문화연구소가 1997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의 기록이다. 난잔대학 내에 1974년에 설립된 난잔종교문화연구소는 설립 취지에 맞춰 기독교와 아시아의 여러 종교와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불교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 각종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출판에 힘써왔는데, 이 책도 그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이다. 난잔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안반 브라후트 신부(1928~2007)의 지적은 이 책의 존재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종교 간 대화의 시대가 지닌 특징은 ‘하나의 종교 내의 문제’ - 단지 하나의 종교에만 관련되는 물음 - 란 이미 존재하지 않

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나의 종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대부분은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배운다는 것은 기독교와 불교에 공통되는 물음에 대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가 묻는 물음과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써 제시하려는 대답은 불교의 물음과 대담과 중첩되는 방식으로서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당연히 불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불교의 물음과 대답은 기독교의 그것들과 오버랩 되는 방식으로 물음과 대답이 된다. 타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해진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하나의 지구촌’이란 ‘하나의 종교촌’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라는 종교적 영향사(影響史)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에게 불교와 대화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자기이해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

다. 또한 근대 이후 기독교와의 만남 속에서 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불교도들에게도 기독교와의 대화를 통한 불교 이해가 현실적인 과제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원래 이 책의 일본어 제목은 <기독교는 불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제목은 “불교는 기독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메아리로서 기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1997년 난잔연구소 심포지엄 기록

불교와 기독교 대화 활성화에 시발점

이 책에 실린 불교학자 타케다 류우세이 선생의 글은 그런 메아리로서 읽힌다.

“기독교인이 불교로부터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는 신학적 태도와 그 진중한 겸허함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반대로 불교인들도 기독교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타종교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신학적, 교의적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비로소 기

독교의 종교적 진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다면 불교와 대화하려는 기독교와 기독교와 대화하려는 불교,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적 진수’ 일 것이다.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가 교토학파(京都學派)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책서 거론되는 주제와 논의의 방향은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믿는다. 교토 학파의 사상이 다름 아니라 불교적 전통에 기초하면서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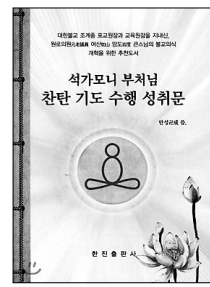
이 책의 한국어 출판은 한국어 연구하는 일본의 신학도와 일본서 공부하는 한국의 신학도들이 힘을 합쳐 번역에 동참해줌으로써 가능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연구자들의 학문적인 교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수행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친탄기도 수행 성취문

만성 스님 지음 | 한진출판사 펴냄 | 8천원



부처님 일대기를 비롯해 제자이야기, 천도의식 등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만성 스님이 쓴 <석가모니 부처님 친탄기도 수행 성취문>이다. 저자는 과거 1980년에 <우주인과 예수>를 써서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자는 “쇠퇴 일토에 있는 불교를 혁신해 불교의 중흥에 이바지 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기획의 뜻을 밝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수행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 양귀리마라는 무간 지옥에 갈 나쁜 행위를 많이 했지만 부처님을 만나 아라한이 됐다”며 “계행 중 가장 나쁜 행위가 살생인데 그것을 99년 하고도 아라한이 된 것은 모두 스승을 잘만 난 덕택”이라고 설명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예불문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어 천도법요식이 소개된다. 특히 진정한 천도의 의미도 소개된다. 저자는 “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 세계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며 “한문이나 주술적인 진언 보다는 읽는 본인이나 참가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한다.

의미도 모르면서 진언이라는 명목에 불러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진언 다라니가 만들어진 유래를 비롯해 아라한에 대한 설명, 친탄기도의 공덕 등이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윌루퍼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중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善隆/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정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쟁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지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직/신국판양장/6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중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라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적 연구
입법계통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구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회해
천태지자·윤서주평·영봉유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제
이원정 편/목재본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북تاب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books